



개구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은이 페터 헤르틀링



이년 전 나는 아이와 함께 네덜란드 해변에 있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우리는 자주 수영하러 갔었어요. 그 당시 다섯 살이었던 내 아들 클레멘스는 바닷가에서 가지고 놀 큰 초록색의 노란 고무 개구리 튜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매우 좋아했고 항상 그것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는 물 속에서 개구리튜브에 앉아 파도를 타고 놀았어요.



여러분이 썰물과 밀물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다에는 썰물과 밀물이 있어요. 썰물은 바닷물이 육지에서 흘러 나가고, 밀물은 바닷물이 육지로 흘러 들어와요. 그 힘과 속도는 매우 크고 빨라서 썰물일 때 수영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바다로 끌려 들어가요. 그래서 썰물일 때는 수영하면 안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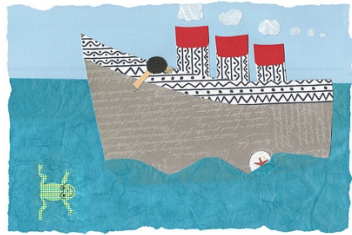
클레멘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개구리튜브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개구리 튜브를 바닷물 위에 올려놓고, 수영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나는 그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요: "개구리가 도망간다! 개구리가 도망간다!" 나는 개구리튜브가 이미 멀리 바다 위에 떠있는 것을 보았어요.



나는 개구리 튜브를 잡으려고 바다속으로 들어갔지만. 바닷물에 발이 빨려 들어갔어요. 모래가 썰물에 밀려나갔고 개구리 튜브를 쓸고 가버려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클레멘스는 엄청 크게 울면서 말했어요:
 “내 개구리 튜브는 어디로 간거예요?”
 바다 건너편에 영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아마 내일쯤이면 개구리 튜브는 영국에 도착할꺼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바다에서 개구리 튜브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지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
 개구리 튜브는 계속 계속 멀어졌어요.
 바다에서 그는 아주 작았어요.
 엄청 큰 여객선이 그 옆을 지나가고, 그 배 위에 있던 한
 소년이 개구리 튜브를 보고 소리쳤어요.
 “개구리가 있어요, 난 저 개구리 튜브를 가지고 싶어요!”



그 소리를 들은 선장은 말했어요.:
 “네가 원한다고 해서 배를 멈출 수는 없단다.
 배를 멈추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배가
 멈추었을 때에는 이미 개구리는 사라지고 없을꺼야.“
 결국 소년은 개구리 튜브에게 손을 흔들어주었고,
 개구리 튜브는 다시 영국으로 떠났어요.



또는 이런 이야기: 개구리 튜브는 계속 떠다니다가 영국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다시 썰물에 개구리 튜브는 바닷물과 함께 더러운 물이
 나오는 하수관 쪽으로 밀려 갔어요.
 파도가 개구리 튜브를 그 관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하수관 안은 어둡고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하수관이 점점 좁아졌지만, 파도가 강하게 불쌍한
 개구리 튜브를 안으로 자꾸 밀어 넣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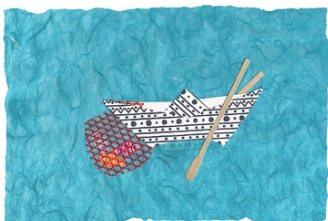
썰물이 되자, 바닷물이 빠지면서 개구리튜브는 그 냄새가 심하게 나는 하수관 안에 갇혔어요.
계속 그 속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조금씩 개구리튜브의 공기가 빠지면서 크기가 작아졌고, 쭈글쭈글해진 몸으로 하수관 밖으로 헤엄쳐 나왔어요.
해안가로 밀려나온 개구리튜브를 한 아이가 발견하여, 집으로 가져가 공기를 넣어 주었어요.








나는 아주 재미있는 개구리 이야기도 생각했어요.
개구리튜브는 바다에서 오랫동안 떠돌다가 영국의 해변에 도착했어요 파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하늘에는 폭풍이 몰려왔어요. 번개가 쳤어요.
잔잔한 바람은 강한 폭풍으로 변하였고, 큰 배들 조차 항구로 대피하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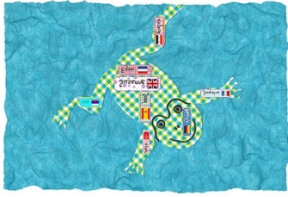


하지만 개구리튜브는 너무 가벼워서 높은 파도 정도는 신경쓰지 않았어요.
그는 성난 파도를 뛰어넘었고, 때로는 파도 사이로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를 본 사람은 고무마개가 사라져 공기가 빠질까 걱정하였어요.
그러면 개구리튜브는 가라앉겠지만.
그러나 내 이야기 속 개구리튜브는 가라앉지 않아요.



조금 전에 영국 해변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은 가끔 아버지 배를 몰래 타고 바다를 나가곤 했어요, 이번에도 아버지 몰래 배를 탔어요.
그는 여러번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소년이 날씨가 어떠한지 신경쓰지 않았어요. 그게 그의 실수였어요.

	<p>그는 계속해서 바다 쪽으로 노를 저었고,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몰려와 배를 뒤흔들고 들어 올렸어요.</p> <p>나는 그냥 에드워드라고 부르는 소년은 노를 놓치고 힘없이 바다 위에 떠밀려 다녔어요.</p> <p>계속해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에드워드는 손으로 물을 퍼내려고 애썼어요.</p> <p>그러나 효과는 없었어요.</p> <p>금방 배에 물이 가득 차서 무거운 돌처럼 가라앉기 시작했어요.</p>
	<p>소년은 무서워서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p> <p>파도에 휩쓸리며 많은 물을 삼켰고, 수영을 하려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소년은 수영을 아주 잘했지만, 이런 폭풍 속에서는 수영을 할 수 없었어요.</p>
	<p>그때 개구리 튜브를 보았어요.</p> <p>개구리튜브는 파도에 밀려 에드워드 쪽으로 다가왔어요.</p> <p>공기가 빵빵하게 들어 있었어요.</p> <p>에드워드는 개구리튜브를 부여잡고 파도를 이용해 해안가까지 왔어요.</p> <p>이 내 개구리 튜브가 한 아이를 구했어요.</p>
	<p>그리고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p> <p>개구리튜브는 바다로 떠났어요.</p> <p>날씨가 좋아서 금방 영국에 도착했어요.</p> <p>거기서 한 소녀가 해변을 걷다가 개구리튜브를 발견했어요. 소녀가 말했어요:</p> <p>“와 웃긴 개구리튜브네, 난 이거 가질래.”</p> <p>엄마가 말했어요:</p> <p>“개구리튜브는 여행을 더 하고 싶을지 몰라”</p>
	<p>있잖아, 우리가 개구리에 반창고를 붙이고, 물에 지워지지 않는 굵은 펜으로 이렇게 쓰자:</p> <p>개구리튜브가 영국에서 수잔을 만났어요.</p> <p>이 개구리튜브를 발견하면 계속 떠날 수 있게 해주세요!”</p> <p>그리고 다시 개구리튜브를 바다로 보내줬어요.</p>



네덜란드에 사는 에곤이라는 소년이 개구리튜브를 발견하고 자기이름을 적은 반찬고를 붙였어요. 개구리튜브는 다시 프랑스로 갔어요. 프랑스에서는 자클린이라는 소녀가, 스페인에서는 호세라는 소년이 이름을 붙였어요. 마지막에는 개구리튜브에 온통 이름표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다시 바다로 떠났고 다시는 어느 해변에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너희는 어떤 개구리 이야기를 할거야?



끝